

2001년 2월6일 한국복지교육원 자유게시판에 올렸던 저의 글에 이중섭님께서 반론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사회복지운동에 관한 토론”에 해당하는 글들을 모아 한글로 편집한 것입니다. 토론의 한편에 섰던 이중섭님은 존경하는 이용교 교수님의 제자이며, 현재 부산대학교 대학원생입니다. 한국복지교육원 자유게시판에서 해당 게시물 번호로 찾으시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중섭님과 대화는 매우 유익하고 보람있는 것이었습니다.

사회복지의 혼을 가진 사람, 잘못된 현실에 대해 분노하며 기꺼이 그 개혁의 선봉에서 고자 자신을 내어놓는 젊은 복지인, 이중섭님을 알게 된 것이 제게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만나 뵈 적은 없지만, 복지를 위하여 큰 일을 하실 분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복지인들은 각기 자신의 일터에서 맡은 일에 열중하느라 자칫 이 세상을 외면하거나 혹 마음이 있어도 선뜻 개입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인들이 주도적으로 혹은 조력자로서 개입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일들을 정치인과 경제인, 시민운동가들에게 내맡기고 자꾸만 작아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괴하던 차에, 이처럼 세상을 껴안고 몸부림치는 젊은 복지인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반갑고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평소 이용교 교수님께서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사회복지사를 주창함으로써 우리의 시야를 넓혀 주셨습니다. 역시 이용교 교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을 품고 복지를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학문과 현업에 충실하면서도 사회복지 공동의 문제, 사회 일반에까지 안테나를 세우고 참여하려는 자세, 그것은 알게 모르게 영향을 끼친 훌륭한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마도 이중섭님은 이용교 교수님의 총애를 받는 제자였을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어에 Commitmen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헌신, 열심, 전념, 현실참여"의 뜻입니다. 이중섭님은 사회복지에의 Commitment가 있는 헌신된 복지인일거라고 믿어집니다. 한국복지교육원과 같은 성격의 게시판에서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놓고 다수와 다른 성향의 글을 감히 쓰시는 것은 그만큼 사회복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깊다는 뜻일겁니다.

긴장되고 고단한 작업일 수도 있는데 기꺼이 그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입니다. 인정과 보상, 지지와 격려는커녕 비난과 오해, 싫증과 무관심이라는 반응에 실망하기도 하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게시판에 올려진 이중섭 혹은 잠뱅이2000님의 글은 회를 거듭할 수록 깊어지고 넓어지고 성숙해져 왔습니다.

그것은 이중섭님이 committed social worker라는 증거입니다.님은 사회복지를 외면하고 다르게는 살 수 없었던 것입니다.사람때문에 복지를 포기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힘들다고 피하지도 않았습시다.

세상을 바꿀 사회복지사,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갈 사회복지사, 복지계의 소금이 될 사회복지사, 우리들의 소중한 동료 이중섭님과 함께 했던 이 토론을 귀한 교훈으로 생각합니다.

## 현장은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이름 : 한덕연 번호 : 1004 게시일 : 2001/02/06 (화) PM 11:56:19 조회 : 50

참쑤 님께서 쓰신 글에 깊은 감동과 동감을 느끼면서...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이렇게 학창시절에 보았던 현장에 대한 환상과 희망이 처음 사 회사업을 시작할때 얼마나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지 모른다고 쓸데없는 기대와 희망으로 좌절 의 폭을 키운다고..."

누군가 했다는 위의 말에 저는 동의하지 않는답니다. 물론 참쑤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 지 않으시겠지요.

학창시절에 한 공부가 부족했고 현장체험이 부족했고 네트워크가 부족했고 준비가 부 족했기때문에 현장을 제대로 알지 못한 탓이지, 현장이 잘못된 탓으로만 돌릴 일은 아님 니다.

"아무리 고민하고 준비하더라도 현장의 한계를 뛰어 넘기란 그리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 처럼 더많은 좌절과 혼돈이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참쑤님, 현장에 대한 저의 인식은 다릅니다. 우리가 잘 준비하면, 현장은 변화됩 니다. 현장을 벽으로 느낀다면 그것은 공부가 부족한 탓입니다. 현장은 그렇게 공고한 벽이 아닙니다. 저는 배우고 공부한대로 일했으며, 김제사회복지관의 선생님들도 배우 고 공부한대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얼마 든지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용교 교수님 표현처럼 우리 사회복지 학도들이 착실하게 내공을 키워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많은 사회사업에 희망과 비전을 가진 동지들과 만나고 나누어야 하는것이입 니다. 지치고 힘들때, 현실의 벽에 머리를 쳐박아야 할때 우리는 함께 희망을 꿈꿔왔던 그 순간을 그리며 또 다시 힘을 내야 할것입니다."

참쑤님의 위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지지하고 찬성합니다. 100% 전적으로.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참쑤님의 위의 꿈에 감동합니다. 우리의 클라이언트는 바로 "세상"입니다. 우리는 더 나 은 세상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장애인, 노인 등 좁은 의미의 클라이언트

를 제대로 돕기위해서도 우리는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속에 복지가 구현되도록 "세상"을 클라이언트체계&표적체계&행동체계 삼아 큰 꿈을 가지고 일해야 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위대한 열망으로 오늘도 복지인의 길을 가는 참숯님께 지지와 격려, 박수를 보냅니다.

참숯님, 당신의 사상에 경의를 표합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 한덕연선생님께 정중하게 묻습니다.

이름 : 잠뱅이2000 번호 : 1010

게시일 : 2001/02/07 (수) AM 11:59:18 (수정 2001/02/07 (수) PM 00:02:20) 조회 : 58

아주 작은 정보나마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일정정도 공인으로 인정받고 있는 한덕연선생님에 관한 자료들을 찾아보았습니다. 화려한 경력들과 스스로가 생각하는 사회복지에 대한 추상적 정의들을 여러 지면을 통해서 무척이나 손쉽게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인사말은 이쯤에서 생략하도록 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겠습니다.

### 1. 현장은 우리(?)가 바꿀 수 있다.

참숯님의 견해에 덧붙여 자신의 생활속 논리를 설명하기 위해 설정된 "현장은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이 주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헌데 문제는 그 우리가 어떤 우리냐는 것이 문제지요. 한덕연선생님은 그 "우리"라는 포괄적이며 추상적인 변화주체를 어느 범위까지 설정하셨는지요?

저는 한덕연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우리"안에도 바뀌어야 할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지요? 그런데 아쉽게도 원활한 운동의 진행을 위해서는 운동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세력들의 일정정도의 합의된 목표와 지향점이 동등선에서 출발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찌지요. 이놈의 "우리"에는 사회복지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장애인이며 노인의 인권과 복지를 생각한다는 명목상이유를 들어 이들을 등쳐먹기에 바쁜이들도 있으며, 이러한 현장의 실태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우리"중에는 조용히 침묵하며 눈을 감아버린 이들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모든 "우리"가 한덕연선생님이 말한 현장을 바꿀수 있는 변화주체로서의 "우리"가 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혹시, 한덕연선생님께서서는 변화를 주도하는 "변화주체"와 변화가 되어야 할 "변화객체"를 혼동을 하고 계신것은 아닌지를 또한번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물겠습니다.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시려 사용하신 한덕연선생님의 그 "공부"가 자본주의사회에서 이윤만을 추종하는 기능적 지식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자본주의사회내에서 최소한의 윤리를 강조하는 양심의 추상적 형태를 내포하고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실수 있는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잠뱅이 2000

##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애쓰시는 잠뱅이님께...

이름 : 한덕연    번호 : 1010.1

게시일 : 2001/02/07 (수) PM 01:12:24 (수정 2001/02/07 (수) PM 01:18:11)    조회 : 57

잠뱅이2000 님의 글 감사합니다.

님의 글에서 사회복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보았습니다.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누구보다 더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셨던 것 같습니다.

글의 문체나 내용으로 보아 저보다 더 많은 고민과 학습을 하신 것 같아 제가 오히려 잠뱅이님께 여쭙고 배워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줍게는 자신의 일터를 넓게는 사회복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겠습니까? 잠뱅이님께서 대답하실 그 '우리'가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공부'에 대한 것도 그렇습니다. 복지인으로서 헌신하고 준비하려면 어떤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문서적에서 얻는 지식, 교수님과 선배님 그리고 동료들로부터 얻는 지식, 견학과 체험속에서 얻는 지식, 그리고 기능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공부의 내용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잠뱅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윤리와 예절, 꿈과 열정, 인정과 사랑도 우리가 공부해야 할 것들이지요.

저는 사복정연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실습 및 봉사 포함) 이외에 추가로 다음과 같은 공부를 권하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삶을 소재로 한 작품을 많이 읽자

전공 교재를 학기초 2주내에 한두번 완독하자

참고도서와 현장에서 나온 자료들을 읽되 매주 1권 정도 읽도록 하자.

매주 복지계의 주요 소식들을 읽자

위와 같이 읽고 생각한 것을 매주 동료,학우들과 함께 나누자. 자신이 읽은 책은 고작 한 권뿐이지만 함께 하는 이가 열이면 열 사람이 읽은 책들의 주요 사상과 내용을 듣고 지식지도를 빨리 넓게 그려갈 수 있다.

최소한 한달에 한번 정도는 현장을 견학하고 선배를 만나자.

그리고 진로를 탐색하고 꿈과 열정을 갖고 좋은 동료들과 사귀도록 돕기위해 전국사회

복지대학생정보화캠프를 하기도 합니다.

현장을 배우고 체험하고 좋은 동료, 선배, 학우들을 만나고 행복한 추억들을 만들게 하기 위해 복지순례를 시키기도 합니다.

실무기능을 숙달시키고 행복한 추억과 좋은 지지망을 얻게 하기 위해 겨울합숙훈련도 시킵니다.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며 자극과 도전을 주고 받으며 함께 성장하도록 전문적 지지망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사회복지계 전체를 떠안고 고민하시는 잠뱅이님,

사회복지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 중에는 두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제도를 개선하려 노력하고 부정부패불의에 맞서 감시, 비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의 수고 덕분에 사회복지의 각종 제도와 근무여건이 개선되어 왔고 또 비리 억지효과도 -안 한것보다는- 있으니 이들의 수고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또 한편에는 사회복지사들이 실력을 갖추고 성실하게 일할 수 있도록 책선(責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부정에 대응하기보다는 긍정을 강화하려는 접근이지요. 이런 사람들 덕에 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자신을 채찍질하며 다짐하는 복지인들이 있으니 이것도 고마운 일입니다.

잠뱅이님은 어떠신지요?

중요한 것은 각기 서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으니 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입니다. 미처 다루지 못하고 부족한 것은 서로 보충하고 채워가야 할 것이지 비난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책과 현장과 선배들과 학우들과 클라이언트들에게서 많은 지식을 쌓고 꿈과 열정을 갖고 동료들과의 지지망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현장에 가서도 소신껏 일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맞서 싸워야 할 경우도 있겠지요. 열심히 공부한 사람만이 지혜롭게 힘을 모아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뱅이님, 한번에 모든 것을 다 바꿀 수는 없지만, 하나씩 조금씩 변화시킬 수는 있지 않을까요?

사회복지를 사랑하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고민하는 잠뱅이님,  
저는 그런 잠뱅이님을 존경합니다.

다만, 그 책임감이 지나쳐서 님의 기가 손상되고 즐거움과 평안을 잃을까 염려할 따름입니다.

---

추신 : 홈페이지에 있는 저의 글을 읽어주셨다니 고맙습니다. 잠뱅이님의 고견을 듣고자 하오니 소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2-3280-8197 사회복지정보원에서 사회사업가 한덕연 드림.

## 한덕연 선생님께 답변 드립니다.

이름 : 잠뱅이2000    번호 : 1010.1.1

게시일 : 2001/02/07 (수) PM 06:42:03 (수정 2001/02/07 (수) PM 07:01:51)    조회 : 45

한덕연선생님의 조용한 답변 잘 읽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먼저 한덕연선생님께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이말을 먼저하는 것이 순서겠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답변을 읽으면서 그에 대한 답변으로 무슨말을 써야할지 참 막막해지는 기분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한덕연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한국 사회복지에 대한 부드러운 정세의 인식과 이러한 정세를 바탕으로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사회복지 변화주체세력들의 운동형태로서의 온건적 포괄성 그리고 선생님 개인에게서 풍기는 낙관적이며 관조적인 태도때문이었습니다. "네말도 말고 내말도 맞다"라는 식의 지나친 허무주의는 한덕연선생님이 현재 보여주고 있는 왕성한 활동력을 조금은 의심케하는 부분이었습니다.

### &. 변화를 위한 운동방법

한덕연선생님 선생님의 말씀처럼 부정한 현실이나 문제사안에 대해서 한쪽은 직접적인 비판을 선호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긍정을 강화하는 쪽이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방법상의 차이는 운동 주체별로 문제사안에 대한 정밀한 해부나 분석의 결과가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선생님께서는 긍정의 강화로도 충분한 변화를 모색해 볼 수 있다는 쪽이지요. 좋습니다. 저도 선생님의 운동방법론을 가지고 비판할 생각은 추후도 없습니다. 존중합니다.

하지만, 긍정의 강화로 변화를 모색해 볼 수 있다는 논리에는 "변화의 속도"에 대한 고민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문제"를 중심에 두고서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원인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비판을 받는 쪽과의 부득이하게 논쟁을 불러일으켜 문제에 대한 지식에서 유리된 여론을 환기시킴으로서 변화를 한단계 더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적어도 긍정의 강화라는 온건적 변화보다는 말입니다.

좋습니다. 변화의 속도가 조금 느리면 어쩌나 그래도 긍정의 강화로도 변화는 가능하지 않느냐는 반론이 가능할 듯 싶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연일 터져나오는 비리와 부패사건, 그리고 시설수용자들의 인권참상을 고려해 보신다면 전혀 방기할 사항이 아닐 것입니다. 변화의 속도가 느린만큼 비리와 부패한 사건에 연루된 우리들 미래의 사회상과 부패한 시설의 수용자들의 인권은 더디어진 시간만큼 일그러질 수밖에 없습니

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 내시려는지요? 느려진 시간동안 더욱더 굵아지는 부패한  
현장들이며 수용자들의 희생은 또 어떻게 정당화 시키시려는지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사회복지 저변화를 위해 사회복지정보화연합을 탐과  
열정으로 견고하게 이루어내려는 노력은 지금도 존경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위한 운동  
방법의 차이에 대한 비판적 논조가 선생님이 현재 하고 계신일에 대한 비판으로 비추어  
질 소지를 걱정하며.....

- 잠뱅이 2000

바쁜 가운데에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준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 변화 속도...

이름 : 한덕연    번호 : 1010.1.1.1

게시일 : 2001/02/08 (목) AM 00:29:50    조회 : 33

잠뱅이2000 님의 글을 읽는 동안 내내, 매우 사려깊고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분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의 앞 글에서 사회복지 현실 개선을 위한 접근방법이 두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도개선과 감시,비판을 강조하는 분들도 실력쌓기를 버리지 않고, 내실을 갖추는 것을 우선시하는 사람도 제도개선과 감시,비판,운동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두가지 접근법을 구분하였을 뿐, 사실은 두 입장이 연속선상에 있고 다만 어느쪽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즉, 양단간에 단절되는 상반된 입장이 아니고, 주된 강조점이 어느쪽에 있느냐의 차이일 뿐이지요.

저는 운동쪽의 역할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능력이나 용기가 부족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거나 혹은 주된 관심사가 달라서 미처 마음쓰지 못하는 부분인데, 저의 동료들인 사회복지개혁모임이나 잠뱅이님과 같은 분들이 용기있게 싸워주시는데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화속도라는 관점에서 운동적 접근을 강조하셨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 일이 생겨서 오늘은 이만 줄이고자 합니다.

잠뱅이님의 가시는 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빌며...

사회사업가 한덕연 드림.

## 실천적 지식인이 되는길.....

이름 : 이중섭 번호 : 1158

게시일 : 2001/02/25 (일) PM 04:12:37 조회 : 67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계급과 계층에서 자유로운 지식인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계급과 계층에서 자유롭다는 것은 다양한 계급이나 계층의 이해관계를 떠나 자신과 현상을 객관화할 수 있는 독립적이며 때로는 특권적 지위를 소유하고 있다는 뜻일 것 입니다. 지식인의 본업은 "진리탐구"라는 해묵은 정의는 이젠 탐구에 더하여 '실천'을 요구하고 행위했던 에밀졸라나 앙드레 지드, 샤르트르, 노암 촘스키 그리고 칼 만하임 등과 같은 도덕적 지성앞에서 이젠 시대가 요구하는 개념으로 조금씩 전환되어 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물론 이러한 전화는 피부로 체감할 정도의 속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 실천이 동행되는 지성을 갈증하는 이들의 일시적인 신기루현상 일지 모릅니다.

"미국의 지식인은 현실정치와 사회문제에 적극적인 비판을 꺼려하는 <문화적 좌익>만 있을 뿐이다"는 R.Rorty의 얘기가 시사해주듯 실천이 동반되는 지식인이 되는 일과 찾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닌 듯 합니다. 이론이 요구하는 바를 충실히 이행할 줄 아는 지식인! 비록 현실적인 여건으로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이에 괴로워할 줄 아는 지식인! 우리들이 진정 사모해야 할 지식인입니다.

실천적 지성을 꿈꾸는 우리들의 고결한 도덕과 양심을 강간하는 무책임한 관습과 관성적인 침묵은 순결의 상실이라는 육체적 강탈과 세상과 유리된 음지속에서만 고뇌하는 정신적 강탈을 자행하여 갈기갈기 찢어진 우리들의 나체앞에서 쾌락을 맞본 자의 음흉한 미소와 호쾌한 웃음만을 제공해줄 뿐입니다.

관성과 침묵이라는 욕망의 배설자들을 자신의 사고속에서 심판하는 일이 실천을 지향하는 지식인을 향한 그 첫걸음 입니다.

- 부산에서 이중섭 -

## 사회복지에서의 실천적 지식인이란 ?

이름 : 한덕연    번호 : 1179

게시일 : 2001/02/28 (수) AM 11:39:33 (수정 2001/02/28 (수) PM 01:25:05)    조회 : 55

1158번 이중섭님의 글, "실천적 지식인이 되는 길"을 읽고..

이제는 이중섭님께서 생각하시는 "실천"의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실천"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관념적 언어가 아닌 구체적인 실무 사례나 가상 시나리오로써 예시, 적시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 글을 씁니다.

저는 서울에 있으면서 사회복지 운동가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사회복지개혁모임의 주역들이 가까운 지인(知人)들이었고, 장애인 운동 현장의 주역들은 거의 대부분 저와 절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모여서 사회복지 현실을 비판하며 괴로워하며 제도 개선의 목소리를 높이는 뜻있는 중견 사회복지사들이 저의 동료들이고 친구들입니다.

저의 성향과는 사뭇 다르지만, 저의 나이와 활동영역때문에 이런 분들과 자주 만나게 됩니다.

이중섭님께서 말씀하시는 실천적 지식인이란 이런 분들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떤 분처럼 하는 것이 "실천"하는 것인지 이중섭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론이 요구하는 바를 충실히 실행할 줄 아는 지식인, 비록 현실적인 여건으로 실행하지 못하더라도 이에 괴로워할 줄 아는 지식인이라고 쓰셨는데, 이중섭님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으면서도 손에 잡히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이중섭님께서 비판하시는 '침묵하는 지식인'과 이런 지식인이 어떻게 다르다는 것인지 얼른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 '침묵하는 지식인'이고, 어떤 분이 '실천적 지식인'인지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구체적 행위에 있어서는, 양자 모두 자기 일을 하고 있을 뿐 아닌가요? 침묵하는 지식인의 행위와 사모해야 할 지식인의 행위가 어떻게 다른지요?

사회복지 운동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할 때 종종 느끼는 안타까움 중의 하나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그것을 모를 때

가 적지 않습니다. 저와 같은 실무지향적 사회복지사에게는 운동가들의 용어가 애매하게 들릴 때가 많답니다. 자신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겠다는 것인지 '자기 적용'은 약하고, 남이 어떻게 해야 한다는 설교만 있기 때문은 아닌지요?

만약 손이 입에게 '너의 하는 일이 무엇이나?', 발이 머리에 '너의 하는 일이 무엇이나?'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열심히 땀흘리며 수고하는데 너는 무엇을 하느냐? 고 힐난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여쭙고 싶습니다.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실천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침묵하는 지식인이라는 것인지...

우리가 충실히 이행해야 할 '이론이 요구하는 바', 우리가 괴로워하고 시급히 개입해야 할 실천적 과제, 그것이 무엇입니까?

누구의 행위가 정당입니까? 합의도출이 가능한 문제입니까?  
谁的 생각으로써 누구의 행위를 비난할 수 있습니까?

저의 생각을 말할 수는 있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1000원을 까먹고 있는데, 부정한 듯 보이는 10원을 깨끗하게 잘 쓰도록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이 운동입니까?

1000원을 잘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10원의 비리를 고치는 것이 사회복지 운동이요 실천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그것도 사회복지 운동이어야 하지만, 그것이 핵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운동의 목표와 방법이 핵심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나마 그 10원의 비리를 어떻게 고치자는 것인지 내놓는 대안이라는 것이 비현실적이고 자신은 희생하지 않고 남에게만 명예를 지우는 식이라면, 식상한지 이미 오래입니다. 고민과 노력을 시위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운동, 그런 운동은 정말이지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말뿐인 사람들, 엉터리 방법론으로 인간세상 삭막하게 만들고 실용적 성과는 얻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운동가들과는 거리를 두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10원의 비리와 부정과 억압과 부조리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 근본적이고 실현가능한 해결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합의가 있습니까?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실천"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관념적 언어가 아닌 구체적인 실무 사례나 가상 시나리오로써 예시, 적시하여 주신다면 저 또한 제가 생각하는 바, 실천이란 어떤 것인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겁니다.

지식없는 열정, 지식없는 실천, 그것은 선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지식은 합의를 이루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각기 자신의 지식과 소신에 따라 실천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남에게 자기가 생각하는 바'실천'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남들이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확실한 비전과 방법론을 제시하며 자신이 숭선하여 직접 실천해 보여야 합니다.

## 실천은 나부터 !

이름 : 한덕연    번호 : 1180

게시일 : 2001/02/28 (수) PM 00:19:18 (수정 2001/02/28 (수) PM 00:44:39)    조회 : 47

이중섭님과 신종률님의 1158번 글을 읽고서, 변화는 나부터 !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땅의 사회복지를 진정으로 걱정하십니까 ?

남에게 실천을 독려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이 자신의 실천보다 우선할 수 있을까요? 더구나 그 실천목표와 방법이 합의된 것이 아니고 또 자신도 행하지 않는 것이라면, 누구에게 그 실천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

남께 여쭙겠습니다.

남이 만일 우리 사회복지계의 최고경영자라면, 우리 사회복지 전체의 시스템을 움직여가는 social engineer라면, 유기체로서의 사회복지계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social doctor라면,

그렇다면 남은 우리 사회복지계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우리 복지인들이 마땅히 지향하고 이루어야 할 사회복지의 비전, 복지사회의 궁극적 목표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사회복지의 생산성을 높여 저렴하고도 질 좋은 복지 서비스를 생산, 유통시킬 수 있겠습니까.

자선과 구제, 수용보호 차원 이상의 새로운 이미지 구축을 위한 전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0년뒤의 사회복지를 위해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의 미래를 위한 인재 확보와 인력개발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영되지 않고 방만하게 움직여가는 사회복지계, 마치 80/20의 현상을 보는 것 같은 비생산적 사회복지 전달체계, 그래서 터무니 없이 비싸기만 한 복지 서비스,

우물안 개구리처럼 전통적 필드에만 의존하는 복지인들의 진로, 좋은 인재들을 인기학

과에 빼앗기고 일부 뜻있는 복지인들마저 소모품처럼 소진시켜가는 인사...

게다가 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바, 사회복지계의 비리와 부정, 잘못된 제도, 열악한 근무 조건 등...

이러한 사회복지계를 향해 님은 어떤 고민을 했으며 그 결과 어떤 대안을 가지고 어떻게 실천해오셨는지, 지금은 무엇을 어떻게 실천하고 계신지, 님의 실천방법이 바른 지식에 근거하고 있으며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고 확신하시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이중섭님,  
저는 이중섭님을 생각하며, 앞으로 사회복지를 이끌어갈 훌륭한 인재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님의 문제의식과 애정과 의협심에 감탄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목표와 방법을 확실히 밝히고 또 그렇게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더 가슴에 와 닿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때가 아니거나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은 신중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자세로, 님의 의견을 제시하고 다른 분의 지혜에도 경청하며 때로는 권유하고 동참을 호소하는 편이 나올 것입니다.

이중섭님,  
님은 저의 동료 복지인이자 사랑하는 후배입니다.

이중섭님께서 그 애정과 열심으로 그리고 그 넓은 학식으로써 우리 사회와 사회복지를 위해 앞으로 실천해가실 모습을 생각하면, 가슴이 설칩니다.

이용교 교수님의 표현처럼 이중섭님께는 혼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의 혼이 있습니다.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다. 세상을 위한 위대한 열망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님의 나이와 신분으로는 더 많이 듣고 배워야 할 때인데, 다른 분들로부터 배우고 받아들일 문이 닫힐 정도로 너무 강하게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며 집착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한편으로는 님의 생각을 제시하되, 한편으로는 남들의 지혜와 소식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충분히 유연한 입장을 유지하기를 간곡히 권합니다.

## 사회복지운동 - 내공이나 제도나 ?

이름 : 한덕연    번호 : 1185

게시일 : 2001/02/28 (수) PM 09:47:10    조회 : 39

사회복지운동, 내공이나 제도나 ?

1158 이중섭님의 글과 관련한 저의 생각입니다.

열정은 "분노와 애정"이 어우러져 느끼는 감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중섭님께서 가지고 계신 '운동의 열정'은 무엇에 대한 분노이며 무엇에 대한 애정인지 그 실체를 들여다 보고 싶어집니다.

저 또한 사회복지에 대하여는 누구 못지 않은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무엇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애정으로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문제 현상과 대안을 말로써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저의 분노와 애정을 담아내기에는 아직 저의 필력이 너무도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중섭님께서 분노하고 계시는 문제가 무엇인지, 무엇을 꺼안고 절규하며 온몸을 불사르고 계시는지 그것이 알고 싶어집니다.

사회복지 현실에서 가장 먼저 고쳐야 할 시급하고도 변화 가능성이 높은 문제는 무엇일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일까? 문제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 나는 지금 당장 어떤 것부터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것일까?

사회복지 운동의 차원에서 이중섭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 어떤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

350번의 글에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지금 시급히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뭐가 잘못되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쓰셨는데, 그 시급하게 고쳐야 할 잘못이 무엇인지요?

저는 지금, 실천적 지식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의식과 목표를 가져야 하는지, 어떤 전략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난 사회복지 운동가, 혹은 지식인의 현실참여를 강조하는 분들로부터

주로 접하는 문제는 "사회복지사들의 근무조건, 예산과 인력문제, 재정 비리 및 인권문제, 시설의 부패구조와 기관 운영의 비민주성과 노동조합의 문제..." 이런 유(類)의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사회복지운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게 있어서는, 사회복지 전체를 바라보며 진단한 결과 제가 분노하고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이 따위의 것들이 사회복지 운동의 핵심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걸 너무도 사소한 것들입니다.

진짜 문제는 내공입니다.

우리나라 복지 전달체계를 두고, '100원을 넣었더니 90원이 흡수되고 10원밖에 안 나오더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복지전달체계에 100원을 주면, 후원개발과 수익사업을 통해 300원을 만들어서 250원을 유지관리비와 인건비로 쓰고 나머지 50원을 서비스비용으로 쓰지는 않는지? 그 50원마저도 방법을 달리하면 5원만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장애인복지 하는 사람에게 어느 장애인이 "당신들 우리 장애인 때문에 밥먹고 사는 것 아니냐"고 했다는 슬픈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쓰라고 복지예산을 투입하지만, 실제로 그 돈의 대부분을 소모하거나 가져가는 사람이 혹시 사회복지사들이 아닌지 ... 클라이언트의 떡을 우리가 가로채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복지사업에 기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클라이언트를 팔아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아닌지...)

어느 국회의원으로부터는 "장애인복지 예산의 90%가 전달체계의 비용으로 빠지고, 장애인에게는 10%밖에 전달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몸바쳐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복지예산의 대부분이 전달체계의 유지관리비와 인건비로 사라져 버린다는 등, 일반 기업체 직원들에 비해 근무강도와 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등,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담해지기까지 합니다.

저는 어제 모 복지관의 자문위원 회의에 다녀왔습니다. 정직하고 양심적이며 클라이언트들에게 최고의 찬사를 받고 있는 복지관입니다. 그러나 그 결산서를 보면서 - 짐작했던 것이지만 - 씁쓸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보조금의 대부분이 유지관리비와 인건비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중섭님,

이러한 문제가 부패의 문제보다 작습니까? 제도가 잘못되었거나 부패한데서 오는 손실이 10원이라면, 우리 복지인들이 핵심을 잘못 짚은데서 오는 문제, 즉 내공이 부족한데서 오는 손실은 1000원쯤 됩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싸우시겠습니까?

1000원을 통째로 맡아먹고 있는데, 새고 있는 10원 때문에 싸우시겠습니까?

복지인들의 핵심역량(Core competency)을 집중시켜야 할 핵심기능(Core function)을 도외시한 채 시설안에서 착한 마음으로 양심껏 민주적으로 좋은 근무조건 속에서 열심히 부지런히 땀흘려 열정적으로 일하면 그뿐입니까?

사회복지운동 하시는 분들의 목표와 방법론이 핵심에서 벗어나 있다고 보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코끼리의 몸통 전체가 썩어가는데, 발톱에 낀 먼지를 가지고 왈가왈부 시비를 따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나에게 분노에 기반한 공격적 어휘는 문제의식에 점점 감각을 잃어가는 한낱 고기덩어리에 불과한 나의 썩어가는 뇌와 장기에 생기를 불어넣는 에르네기이다. 나의 공격적 어휘사용에 년절리가 나고 짜증을 느끼며, 받아들여지는 분위기가 아니라고 느껴지면 나의 글쓰기는 이제 자연도퇴될 것이다. 그날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슬프게 꿈꿔 보며..." - 이중섭님의 글입니다.

무엇에 대한 분노인지, 무엇을 문제로 보는지 아직 그 구체적인 대상과 내용을 설정하지 않으셨다면, 이제는 "실천적"으로 그것을 고민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사변적, 관념적 문제의식이 아니라, 남들에게 행동을 촉구하는 호소가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남들이 지금 무엇을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지를 현실적으로 제시하며 솔선수범하고 동참을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게시판을 통하여 비판적 문제 의식을 갖도록 깨우치고, 또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토론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언어로만 토론하면 식상하고 지루하고 감이 잡히지 않아서 문제의식은 생겨나도 목표는 잘 그려지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실천해야 한다는 토론보다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 하나씩 다

루어가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토론해보자"가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떨까요?"라는 토론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 글을 쓰기 위해 이중섭님의 글들을 조회해보았습니다.

많은 책을 읽고 현실세계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고뇌하며 연구해오신 모습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끼리의 몸통을 보고 고뇌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사회복지 현실의 사소한 문제에 대한 편향된 시각은 아니었는지 심각하게 고민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대안의 목표와 실행전략에 대해서도 냉철한 현실감을 갖고 실천 지향적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성장입니다.

확일적이고 편향된 시각으로 제자리걸음하며 말만 하는 사람들, 내공이 없고 실천력 없는 일부 운동가들에서 받은 저의 이 부정적 인상을 확실하게 고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운동, 내공이나 제도냐?

살아있는 젊은 지성, 사회복지 양심, 개혁의 선봉 이중섭님께 다시 묻고 싶은 질문입니다.

## 한덕연 선생님께 답변드립니다.

이름 : 이중섭 번호 : 1189

게시일 : 2001/03/01 (목) AM 01:43:17 조회 : 42

처음 선생님과 운동방법론을 둘러싼 논쟁에서 느껴지던 선생님의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논리전개와 상반된 세가지 주제의 이번 적극적인 의견개진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젠 저도 어떤 지점에서 선생님과 마찰이 생기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했습니다. 선생님의 반론격으로 적어내신 세가지 주제의 글을 거칠게나마 요약해서 한 주제로 반론을 작성하려 했지만 각 주제가 가지고 있는 논의사안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부득불 각 주제에 대해 개별적으로 하나씩 반론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더 나은 이해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선생님의 글을 인용하겠습니다. 이글은 선생님이 작성하신 1179번 글에 대한 반론입니다.

### 1. 선생님께서 주장하시는 관념적인 실천형태의 문제제기 가지는 모순

- 한덕연선생님: 사회복지 운동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할 때 종종 느끼는 안타까움 중의 하나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그것을 모를 때가 적지 않습니다. 저와 같은 실무지향적 사회복지사에게는 운동가들의 용어가 애매하게 들릴 때가 많답니다.

한덕연선생님! 운동은 모순과 부정이 있는 곳에서 자발적으로 생성되는 변화를 위한 집단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라는 것은 한순간에 딱하니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변화는 일련의 과정이라는 소리입니다. 때에따라서는 선생님처럼 변화를 위한 거센 목소리는 있되 이를 실행해낼 수 있는 실천방안이 없다는 소리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그 거센목소리를 경청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그 거센 목소리를 내지르고 있는 행위부터가 실천작업을 위한 밑그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긍정과 찬사를 늘어놓는 발언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과 왜곡을 목도하는 자를 우리주변에서 찾는 일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적어도 부정과 왜곡이 추상적 수준에서 한 개인에 의해 유추된 사항이 아닌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이미 속속화된 문제로 제기된 사항이라고 한다면, 변화를 너무나도 같구 하기에 그 부정과 왜곡을 목도하기에도 벽차고 바쁜자들에게 왜 구체적인 밑그림은 왜 없느냐고 선생님처럼 반론을 던지는 자가 있다면 그 행위가 도덕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지를 먼저 묻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위한 작업에 있어서 사실에 대한 여과없는 진실을 공유하는 작업이 왜 선생님에게는 구체적인 실천작업으로 평가받지 못하는지를 묻습니다.

## 2. 사회복지의 부패문제에 대한 경제 환원주의 분석의 모순

- 한덕연선생님 :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1000원을 까먹고 있는데, 부정한 듯 보이는 10원을 깨끗하게 잘 쓰도록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이 운동입니까?  
그나마 그 10원의 비리를 어떻게 고치자는 것인지 내놓는 대안이라는 것이 비현실적이고 자신은 희생하지 않고 남에게만 명예를 지우는 식이라면, 식상한지 이미 오래입니다. 고민과 노력을 시위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운동, 그런 운동은 정말이지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선생님께서 왜 사회복지부패를 목도하는 세력을 운동류의 학생으로 분류화를 시도하고 그 성격의 규정에 구체성이 결여된 말뿐인 복지인으로 제약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덕연 선생님! 제가 운동을 하는 이유는 선생님의 표현처럼 부정한 단 10원을 잘쓰도록 감시하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는 1000원에서 단 10원이라는 부패정도에 대한 비율에도 동의하지 못합니다.) 사회복지의 부패문제를 선생님처럼 공금의 횡령이라는 외형적 단상으로만 분석해낸다면 침묵하는 지식인 조차도 비판의 도마위에 올려놓은 저같은 운동류들은 그야말로 일상적 과시즘에 메몰되어 있는 한심한 자들일 것입니다.

10원이라는 선생님의 말씀처럼 하찮은 공금이 유용되기까지는 구조적으로는 복지1세대들부터 가보처럼 물려내려온 친인척 위주의 족벌경영에서부터 개별적으로는 시설을 운영하는 짱들의 마피아적 권력행사 그리고 식자계층 흔히말하는 먹물들의 끈끈한 침묵카르텔과 인적네트워크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원이라는 하찮은 돈의 유용결과는 동물들이나 먹는 잠곡을 시설의 수용자들이 대신 먹어야하는 현대판 노예들의 처절한 생활상입니다. 한덕연선생님! 아직도 제가 부정한 단10원때문에 미친듯이 선생님의 표현대로 구체성이 결여된 열정을 불태우는 것으로 보이시는지요?

더욱더 많은 얘기와 논의를 하고 싶지만 오늘은 여기서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급히 광주를 올라가 형들과 소주몇병을 까발리고 오늘 또 부산을 내려와 선생님의 갑작스러운 세가지 주제의 반론을 읽고 글을 옮기자니 뒷골이 뻥기기 시작합니다. 내일은 더욱더 섬세하게 비판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의 분명한 입장을 자신있게 개진해 주신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술좀 깨고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 부산에서 이중섭 올림 -

## 존경하는 한덕연선생님 두번째 답변을 드립니다.

이름 : 이중섭 번호 : 1197

게시일 : 2001/03/01 (목) PM 03:19:35 조회 : 44

한덕연선생님! 부산은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전 비오는 날을 그리 좋아하지 않지만 오늘은 괜찮습니다. 선생님께서 저에게 던지신 반론격 질문은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질 듯 싶습니다. 첫째는, 중섭이 내가 그렇게도 날뛰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둘째는, 그 날뛰는 행위가 과연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있는냐? 셋째는, 중섭의 너의 날뛰는 행위가 사회복지의 편향된 사고에 기반한 것은 아니냐? 대충 이렇게 집약해도 될런지요?

그럼 하나씩 아주 정제된 자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1. 내가 분노하는 이유

선생님! 저는 분명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미친듯이 말입니다. 첫번째 저의 분노 대상은 비양심적이고 마피아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있는 사회복지 시설장과 기관장들입니다. 저는 선생님께서 스스로 자평하기에도 사회복지에 대한 엄청난 열정을 소유하신분이 왜 사회복지운동영역에서 제기되는 열악한 근무조건, 시설장들의 공금횡령과 수용자들의 인권참상, 이를 가능케하는 시설의 부패한 구조와 기관 운영의 비민주성 그리고 대안으로 제시되는 노동조합의 문제들을 사소한 문제정도로만 생각하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변에서 문제의 해결과 변화를 위한 방법으로 긍정의 강화나 실무적 지식인의 창출이니 하는 소리를 자신있게 해대는 분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러한 분들의 논리가 "배부른자의 여유"에 기반하고 있지 않나 하는 추정을 해보게됐습니다. 선생님 생각해보십시오. 선생님의 아들이나 딸이 혹은 아버님이 시설에 입소가 되어 이분들을 잘 모셔달라는 의미에서 꼬박꼬박 후원금도 내고 애정어린 감사의 마음도 전하고 있는데 이 놈의 시설장들은 후원금이며 정부예산을 뒷푹무니로 빼먹기에 바쁘고, 보호가 필요한 분들을 공사장에 투입하여 거센 노동을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개같은 상황에서 책만 열심히보고 컴퓨터를 열심히 만지작거리는 유능한 사회복지사가 되라는 말만 되풀이 하실수 있겠습니까?

당장 우리 아버지며 이웃들이 자신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향유받지 못하고 악덕의 시설장들의 경제적이윤의 대상이며 착취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냉정해라" "침착해라" "배운값을 해라"고 백날 얘기해본들 그 소리가 씨알이 먹히겠냐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평가하고 있는 않느냐는 질문을 던질 듯 싶습니다. 하지만, 전 양지마을이며 에바다 사태가 사회복지부패문제의 마지막 사건이 될 거라

는 생각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또 제2의, 제3의 양지마을 사건은 지금도 화려한 부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침묵을 자양분으로 해서 말입니다. 왜 분노하느냐? 저한테 던진 질문입니다. 저는 이소리를 들을때 마다 정말이지 돌아버립니다.

## 2. 구체적인 실천 대안은 있느냐?

처음 제가 이러한 문제에 눈을 뜨게 되었을때 저는 분노가 저의 유일한 감정이었고 반응이었습니다. 뒷일을 준비할 침착하고 냉정한 자세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도한 첫 모임에서는 패배의 쓴맛을 아주 시원스럽게 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직적으로 대응해보기위해서 시민단체를 활용해보기로 했지요. 이것도 저의 부족한 능력때문인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국적 단위로 시설민주화를 위한 씨앗을 뿌리는 작업을 침착한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저와 같은 생각으로 고민한 친구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몇일전 공식적으로 창립을 사수했습니다. 다양한 논의들이 있고 구체적인 실천방안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변화" 그 자체에 동의하는 세력들은 기존 체제내에서 숙성된 모순과 부패에 저항이라는 기초적인 사고의 합일을 전제로 출발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모순과 부패에 저항"은 현실을 냉철하게 분석해내고 이를 모든이들과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뭘 알아야 "변화"를 꺾먹든 삼아먹든 할 것 아닙니까? 저는 때로는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어투로 변화를 위한 기초적인 사고의 전환을 요구하는 글을 적어내기도 하고, 문제에 관여된 개별주체를 실명으로 거론하여 공식적인 공론의 장에서 토론함으로써 참여를 이끌어 내기도 합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저의 글이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분노가 존재할뿐 구체적인 방법론이 없다는 반론은 솔직히 자신의 사회복지이데올로기라는 편향된 사고에 매몰된 자들의 "비아냥"이나 "판죽걸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솔직히 선생님께서는 저의 글에 대한 비판의 지점을 급진적 운동방법론이 현실세계에서 적용가능항가를 몰았어야 했습니다. 이유는 선생님의 1185번의 글에서처럼 사회복지가 가지는 제문제가 선생님이 만나는 운동하는 친구들의 틀을 벗어나지 않았고 그 틀에서 하는 운동을 "급진적"이라고 규정짓는 나름대로의 정의를 가지고 논의를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 3. 운동방법이 사회복지에 대한 편향적 사고에 기반한 것은 아니냐?

선생님! 베버리지가 사회복지의 필요성을 서술한 자신의 보고서를 상식이라고 논한 것 처럼 사회운동또한 상식에서 출발합니다. 부정과 모순이 존재하는 곳에는 기층의 분노에 기반한 운동은 본능이자 상식입니다. 단지 과정상 그리고 방법상의 문제만 남을 뿐입니다.

헌법에 규정된 기본적인 권리 조차도 향유하지 못하는 시설수용자들과 사회복지노동자들, 공공횡령과 유용이라는 확인된 범죄사실에도 법의 심판에서 자유로운 시설장, 가장 민주적이어야할 공간이 인사와 재정의 장악이라는 구조적인 모순과 비양심적인 사고가 결부되어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의 부패단상, 이론이 요구하는 정의와 양심을

폐기하고 침묵으로 견고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우리 지식사회의 부도덕한 행위는 언젠가 폭팔적인 사회복지 민중운동의 혁명을 위한 동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선생님! 제가 목놓아 부르는 선생님께서 말하는 구체성이 결여된 추상적 담론이 적극적인 참여의 효과를 거두지 못할 지언정 문제의식만을 일깨워줄 수 있다는 선생님의 부족한 평가에 저는 대단한 만족을 합니다. 단지 문제의식만을 일깨울수 있다면 저는 이 게시판에서 이제까지의 논의와 토론을 가슴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항상 던져지는 질문들이 선생님의 마지막질문에서처럼 편향적 사고에서 나온 발상들이 아니냐?는 소리를 들을때 마다 너무나도 슬퍼집니다.

선생님과 더 많은 논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번 선생님과 논의가 일순간 반짝이는 일회성 토론이 아니라 서로를 진지하게 설득해내려는 생산적인 공론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 또한 언어의 사용에 선생님께서 불쾌하지않을 만큼의 신중을 계속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선생님의 사회복지에 대한 열정을 진심으로 존중합니다. 언젠가는 "진정한 사회복지"라는 궁극적 지점에서 웃으며 만날날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시간을 조금 앞당기려 미친듯이 휘젓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다시금, 선생님을 사회복지선배로서 존경한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글을 마칩니다.

- 부산에서

이중섭 올림 -

## 진짜 개같은 상황 !

이름 : 한덕연    번호 : 1201

게시일 : 2001/03/02 (금) AM 09:42:37    조회 : 75

사랑하는 이에게...

미사여구들로 휘황찬란하게 조합된 글은 뜻모를 남 이야기처럼 공허할 뿐입니다. 그 엄청난 분노와 열정 속에도 여전히, 코끼리의 코나 몸통을 보고 고민한 흔적이 없습니다. 코끼리 발톱에 낀 먼지만 가지고 그것이 개같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진짜 개같은 상황, 진짜 돌아버리게 하는 상황은 따로 있습니다.

아니 어찌면 그보다 더 안타까운 개갈지도 않은 상황은, 바로 코끼리 발톱의 먼지 따위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느라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는 행위입니다.

사회복지 현장의 진짜 부패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뭐가 썩어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근본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진짜 개같은 상황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진짜 돌아버려야 할 상황에 대해 침묵하고, 아니 진짜 돌아버려야 할 문제에 대해서는 인식조차 하지 못하면서, 사소한 문제로 돌아버릴 지경이라고 엄살부리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지식 혹은 능력이 부족하거나 용기가 부족하거나 또는 생각하는 바가 달라서, 목표와 전략을 잘못 선택함으로써 핵심 기능을 유기하고 있는 "착하고 양심적이고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깨끗한 시설장, 기관장, 사회복지사"들에 대해 님께서는 왜 분노하지 않으니까?

지식없는 열정은 선치 못합니다. 사랑없는 분노는 선치 않습니다.

손상되는 복지는 발톱의 먼지요, 유기되는 복지는 코끼리의 몸통입니다.

님의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는 매우 극단적이고 심한 표현입니다만, 님께서는 핵심을 보지 못하고 사소한 문제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도, 즉 시설 부패의 문제에 대해서도 지식과 신중함과 배려, 객관성, 사랑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음을 열고 눈을 열어 냉철하게 현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술이나 마시고 탁상공론하며 공부를 게을리하면, (일부 극소수) 부패 시설장보다 더 악한 사회복지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계합니다.

## 1% 보호의 원칙

이름 : 이중섭 번호 : 1201.1

게시일 : 2001/03/02 (금) AM 11:12:55 (수정 2001/03/02 (금) PM 01:46:55) 조회 : 65

한덕연선생님! 이번 선생님의 글에 대한 반론은 선생님의 논리에 충실히 따른다는 전제로 글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꼬끼리의 몸통이 썩어가고 있는데 발톱의 먼지와 같은 사소한 문제에 집착하는 저의 행동을 "진짜 개같은 상황"으로 표현하셨더군요. 좋습니다. 선생님의 논리에 따르겠습니다. 선생님의 표현처럼 저는 아주 사소한 꼬끼리발톱의 먼지와 같은 사소한 문제로 미친듯이 날뛰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때론, 정치적 민주주의는 다수가 요구하는 의견으로 소수와 약자를 억압할 수 있는 훌륭한 수단을 제공해줍니다. 이는 서울대 법대 한인섭 교수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는 표현으로 설명될 듯 싶습니다.

사회에서 냉대받고 소외받는 소수를 평등이라는 가치로 통합해내려는 방법들을 고민하는 사회복지학도들에게 "소수와 약자의 보호원리"에 대한 중요성이 던져주는 의미심장한 메시지는 사회복지학문 전반을 가로지르는 원리와 원칙들로 우리행동의 준거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처럼 제가 제기한 문제점이 꼬끼리의 몸통이 아닌 꼬끼리의 발톱에 낀 먼지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표현처럼 1000원에서 부정한 돈 단10원만큼 사소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꼬끼리의 발톱에 낀 그 먼지와 부정한 돈 단10원은 양지마을에서 처럼 시설수용자를 굶주리게도 하고, 영원히 시설의 어두운 창살에 고립시키도 하며, 심지어는 죽이기도 합니다.

국가보안법의 개폐를 둘러싼 논쟁은 선생님과 저의 논쟁의 축소판입니다. 국가보안법의 개폐를 반대하는 측의 논리에는 국가보안법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단1%밖에 되지 않지만 대신 국가의 존립을 좌지우지하는 "안보"를 담보할 수 있기때문에 국가보안법은 개정도 폐지도 있을 수 없다는 소리를 합니다. 단1%의 희생이 이들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그1%에는 해년마다 구치소에 감금되는 수십명의 학생들이 있고 과거에는 사형이 언도되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대통령도 그 "1% 논리"의 희생자이기도 합니다.

한덕연선생님! 우리가 배우는 사회복지학문은 사회의 빈약계층이자 소수인 장애인과 노인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1% 논리"의 대변자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

1%의 논리"가 학문의 당위성에는 설득력있는 논리로 설명되고 인용되면서 왜 왜곡된 실천현장의 소수 희생자들에게는 "진짜 개같은 상황"을 연출하는 논리로 설명되어져야 하는지요.

한덕연선생님 저도 부끄럽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크리스찬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길잃은 한마리양이 있다면 99마리를 놔두고서라도 그 양을 찾아나서겠다는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덕연선생님! 전 99마리라는 다수를 인도하고자 노력하는 선생님을 비난하고자 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길잃은 한마리를 사소한 문제정도나 꼬끼리의 발톱의 먼지정도로 사소하게 접어버리는 어휘사용이나 예증에는 평소의 존경을 잠시 유보해 둘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이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그 한마리를 찾아 나신다고 해서 어두운 들녘에 방치된 99마리의 양이 도망갈꺼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리에서 이탈된 그 사소한 한마리를 향해서 어둠을 내치는 발걸음을 서슴치않는 한덕연선생님의 행동에 존경을 표하며 자신들도 설사 길을 잃고 헤멘다 하더라도 선생님이 자신을 찾아주실것이라는 확신에 한덕연선생님을 진정한 지도자로 찬송하며 그치지 않는 존경으로 사모하고 따르게 될 것입니다.

한덕연선생님! 전 선생님의 표현처럼 사회복지의 문제에 너무나도 무식한 문외한일 수 있습니다. 구체성이 결여된 추상적 담론만을 형성하여 모호한 논리만을 전파하는 허위에 싸인 지식인일 수 있습니다. 꼬끼리의 몸통을 보지 못한채 발톱의 먼지에 정력과 시간을 낭비하는 미련한 사회복지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련하고 우둔한 사회복지사도 꿈은 있습니다.

전, 선생님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이말은 거짓이 아닙니다. 전 지금 학생으로 산전수전 다 겪은 선생님처럼 현장의 깊숙한 체험속에서 나온 경험의 논리를 다른 학자들 사과의 집성체인 책들의 이론적 논리로 재단하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악재를 무릅쓰고 무리수를 두는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한덕연선생님! 한가지 부탁을 드려야겠습니다. 전 선생님과 생산적인 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정말 사회복지부패문제에 꼬끼리의 몸통을 보지 못했다면 그 몸통을 볼수 있는 방법과 그 몸통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실수는 없는지요? 제가 존경하는 부드러운 운동가 한덕연선생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 부산에서

이중섭 올림 -

## “사회복지운동”에 대한 토론을 정리하며...

이름 : 한덕연 번호 : 1215

게시일 : 2001/03/04 (일) PM 02:50:56 조회 : 14

우리들의 소중한 동료, 이중섭님께...

우리의 대화를 지켜보시던 이용교 교수님께서 적절한 때에 휴식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교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운동에 관한 주장과 글들을 좀더 살펴보면서 깊이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저 또한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는 겸허한 배움의 자세를 훈련하고 싶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중섭님과의 대화는 매우 유익하고 보람있는 것이었습니다.

사회복지의 혼을 가진 사람, 잘못된 현실에 대해 분노하며 기꺼이 그 개혁의 선봉에 서고자 자신을 내어놓는 젊은 복지인, 이중섭님을 알게 된 것이 제게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만나 뵈 적은 없지만, 복지를 위하여 큰 일을 하실 분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복지인들은 각기 자신의 일터에서 맡은 일에 열중하느라 자칫 이 세상을 외면하거나 혹 마음이 있어도 선뜻 개입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인들이 주도적으로 혹은 조력자로서 개입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일들을 정치인과 경제인, 시민운동가들에게 내맡기고 자꾸만 작아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괴하던 차에, 이처럼 세상을 껴안고 몸부림치는 젊은 복지인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반갑고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평소 이용교 교수님께서서는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사회복지사를 주창함으로써 우리의 시야를 넓혀 주셨습니다. 역시 이용교 교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을 품고 복지를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학문과 현업에 충실하면서도 사회복지 공통의 문제, 사회 일반에까지 안테나를 세우고 참여하려는 자세, 그것은 알게 모르게 영향을 끼친 훌륭한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마도 이중섭님은 이용교 교수님의 총애를 받는 제자일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어에 Commitmen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헌신, 열심, 전념, 현실참여"의 뜻입니다. 이중섭님은 사회복지에의 Commitment가 있는 헌신된 복지인일거라고 믿어집니다. 한국복지교육원과 같은 성격의 게시판에서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놓고 다수와 다른 성향의 글을 감히 쓰시는 것은 그만큼 사회복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깊다는 뜻일겁니다.

긴장되고 고단한 작업일 수도 있는데 기꺼이 그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입니다. 때로는 인정과 보상, 지지와 격려 대신에 돌아오는 비난과 오해, 싫증과 무관심이라는 반응에 실망하기도 하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게시판에 올려진 이중섭 혹은 잠뱅이2000님의 글은 회를 거듭할 수록 깊어지고 넓어지고 성숙해져 왔습니다.

그것은 이중섭님이 committed social worker라는 증거입니다.님은 사회복지를 외면하고 다르게는 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때문에 복지를 포기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정을 맞으면서도 피하지 않았습시다.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지식을 공유하면 할수록 스스로 성장할 뿐 아니라 타인의 소식(消息) 깎아주고 덧붙여줌)에 의해 다듬어지니 이 얼마나 행복한 연단입니까?

세상을 바꿀 사회복지사,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갈 사회복지사, 복지계의 소금이 될 사회복지사, 우리들의 소중한 친구 이중섭님께 이제 마무리 글을 쓰고자 합니다.

지금 쓰는 글은 님께 토론이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이중섭님께 대한 저의 기대와 감사와 축복의 정을 담아 쓰는 마음의 글입니다.

사회복지운동에 대한 토론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핵심내용은 이렇습습니다.

첫째, 사람마다 경험과 지식과 철학이 다르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님께서 이러한 태도를 수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제가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운동 자세입니다.

어떤 분은 가르치는 일로써, 어떤 분은 순수연구로써 사회복지를 위합니다. 어떤 분은 인정과 인간관계를 중히 여기고, 어떤 분은 정의와 원칙을 중히 여깁니다. 어떤 이는 과정을 중시하고 어떤 이는 결과를 중시합니다. 어떤 사람은 썩은 곳을 도려내는 것을 최선으로 생각하나, 어떤 사람은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 줌으로써 즉 긍정을 강화함으로써 부정을 희석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비판하며 맞서 싸우기를 싫어하는 분도 계시고, 분연히 일어나 싸우기를 마다하지 않는 분도 계시지만, 싸우지 않는 분도 진정으로 복지를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혹 싸워야 할 충분한 명분과 합의가 있고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고 동의하면서도 참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이는 침묵하고 있지만 누구 못지 않게 분노하며

괴로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시작만 하고 목표를 달성할 자신이 없어 망설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러한 사고방식을 비판하는 논리도 있음을 저는 잘 압니다. 하지만 저는 이중섭님께서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되 타인의 태도를 비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논쟁이 아니라 그냥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저 자신도 그렇게 되려고 노력할 뿐, 항상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기에 부끄럽습니다. 제 자신이 이율배반의 모순에 빠져있는 것을 종종 발견하곤 합니다. 그래서 더욱 나의 생각으로써 남을 판단하지 않으려고 조심합니다.

둘째, 사회복지 운동의 비전과 전략에 관한 것입니다. 이중섭님이 만약 사회복지계 전체를 책임진 최고경영자라면 현재의 사회복지를 보면서 무엇을 어떻게 하시는겠는지를 여쭙었습니다. 10년뒤의 사회복지를 위하여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를 여쭙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사회복지 운동의 비전과 전략을 세워주시기를 기대한 것입니다.

10원이 새는 것도 막아야 합니다. 1퍼센트의 약자도 보호해야 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버려지는 1000원 (안전한 아흔아홉마리 양이 아닙니다. 길잃은 한마리처럼 유리방향하는 아흔아홉마리입니다)에 대해서도 분노하고, 10년뒤에 버려질 10000원에 대해서도 분노해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 사회복지운동가라면,

예산의 대부분을 유지관리비와 인건비로 써 버릴 뿐 아니라 핵심기능을 유기하고 지역 사회를 방임하는 사회복지 전달체계와 방법론을 개혁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생활자본 온상속의 화초처럼, 방안의 인형처럼 돌보는, 시설안에서만 지극정성으로 친절하게 양심적으로 깨끗하게 정직하게 열심히 케어하는, 그래서 평생 무기수처럼 수용보호하는 시설의 방법론을 개혁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사회복지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사회복지사 국가고시제도와 학부제로 인한 사회복지 교육의 폐단, 현장이나 학계와 괴리되어 있어 고스란히 학생들의 손해로 돌아가게 하는 안일한 (비전공 타전공) 교수님들, 학생수에 비해 교수님의 수가 부족하고 전공선택 과목의 수가 부족한 것, 복지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소속감 결여 등 이렇게 열악한 교육여건이 "미래의 사회복지를 도둑질"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차대한 운동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사회복지운동의 과제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진짜 큰 도둑"을 잡는데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공부를 게을리하고 무능하여 그 목표와 방법론이 핵심에서 벗어난 채 열심히만 하는 정직한 사회복지사, 착하기만 한 생활교사, 생활보조원이 "1000원을 맡아먹는 큰 도둑, 클라이언트와 세상을 망치는 돌팔이 사기사업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의 사회복지를 훔쳐가는 사회복지 교육 여건이 진

짜 큰 도둑, 큰 악당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십시오.

이 두가지는 토론이 아니라 부탁입니다. 이중섭님께서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이중섭님께서 사회복지운동을 하시는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작은 바램으로, 님과의 토론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토론자로서 적절지 못한 태도를 보였거나 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표현이 있었다면 용서를 구합니다.

---

꿈과 열정으로, 땀과 눈물로, 나는 오늘도 복지인의 길을 간다.  
사회복지정보원 사회사업가 한덕연 드림.

## 한덕연선생님의 부드러움을 존경합니다.

이름 : 이중섭 번호 : 1215.1

게시일 : 2001/03/04 (일) PM 09:20:19 조회 : 7

한덕연선생님! 사고의 저편에 있는 상대방의 존재를 인식케하고 이들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신 선생님께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선생님의 마지막 글을 읽었던 시간은 아마도 4시정도 였을겁니다. 바로 답변을 드리고 싶었지만 저에게도 선생님과과의 토론을 어느정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선생님의 글을 읽고 다섯시간 여 정도를 혼자서 고민하며 보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거세게부는 학교주변을 몇번이고 돌아보았습니다. 같은 길을 반복해서 돌아보았음에도 한번씩 돌때마다 새로운 것들이 한두가지씩 저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저 생각없이 항상 관례처럼 돌아다니는 산책로였지만 이제까지 보지못했던 새로운 것들의 발견앞에서 저는 한덕연선생님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어쨌, 이면의 진실을 유심히 찾으려는 노력보다는 외형의 진실을 알리기에 급급했던 시설 문제에 대한 저의 관성적인 해법에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너무 편향적인 지식과 시각을 소유한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을때면 전 그분의 도덕과 양심을 먼저 의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표면화된 시설문제에 침묵하는 이들 또한 이와 똑같은 논리로 비판의 도마위에 올려놓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의 이런 극단적인 사고는 솔직히 한달전 선생님과과의 첫번째 토론에서 이미 수정이 가해졌습니다.

과거에 저는 시설문제에 침묵한채 사회복지를 논하는 지식인들이 가장 먼저 타도되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해왔었습니다. 적어도 사회복지를 공론화시키고 자체의 이데올로기를 생산해내는 사회복지공인에게서 시설문제의 침묵은 옹당히 해야할 일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를 떠나 기본적인 양심을 자체를 소유하지 않는 비도덕적 비양심적인간으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말씀처럼 그 누구도 사회복지시설문제의 침묵이라는 것대로 양심과 비양심을 판단해 낼 수도 그리고 판단되어서도 안된다는 일관된 논리를 받아드릴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간 저의 과오를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존경하는 부드러운 운동가 한덕연선생님! 부족한 저와 진솔한 토론의 중심에 함께 해주신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신 아름다운 지적에도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공간에서나마 끊이지 않는 선생님의 글들을 자주 뵈기를 기대합니다.

- 부산에서 이중섭 올림 -

기타 참고자료

## 知情意의 신화

이 글은 사회복지정보원 웹 커뮤니티 중 2차합숙팀 게시판에 올려진 글 중 知情意의 신화에 관한 것입니다.

이름: 한덕연 (servant@welfare.or.kr) 날짜: 2001/05/03 09:50:57, 조회: 40

제목: 知情意의 신화(神話)...

어느날 서울역 앞에서 천천히 걷고 계시던 어느 노숙자를 따라 천천히 걸으면서 재권이  
가 경험했던 "Understanding"....

그때의 소중한 체험을 교훈삼아 사회복지를 새로운 관점에서 생각하였을 뿐 아니라 우  
리에게도 그것을 알려준 재권이...

고맙다.

우리 인간은, 우리 사회사업가는 知情意, 곧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조화롭게 겸비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따뜻한 가슴과 냉철한(뚝뚝한) 머리를 가져야 한다는 말도 들었다.  
과문(寡聞)한 탓인지는 몰라도 어느 한쪽이 더 중요하다거나 어느 하나가 덜 중요하  
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이 세가지 인격을 모두 갖추어야 사회사업을 할 수 있다.

따뜻한 가슴이 없는 지식은 쓸모없다.

지식없는 가슴은 쓸모없다.

사랑만 있으면 할 수 있다

이해와 공감에 있으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말들은 모두 知情意의 신화(myth)이다. 위의 주장들은 모두 진실이 아니다.

인간은, 나는, 지정의의 어느 요소가 강하거나 결여될 때가 있다. 때로는 감정과 이해가  
중요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감정보다는 지식과 원칙을 중히 여기기도  
한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와 다를 수 있으며, 오늘 또한 시시각각 상황따라 변할 수  
있다.

나는 변덕스럽고 때로는 간사하기도 하다.

나는 가슴이 따뜻한 사람으로 고착화된 이미지를 원치 않으며, 항상 그럴 자신도 없다.

우리는 불완전하며 때를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가변성 수용의 정신", "고무줄 정신"을 갖고 있다면, 때를 따라 감정을 소중히 해도 혹은 지식을 중히 여겨도 괜찮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감정과 지식 중 어느 한쪽이 더 중요하다거나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한다거나 이분법적으로 양단간에 결단을 내려한다면 오류와 신화에 빠지게 될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가변성 수용의 정신이 없다면 자가당착에 빠지기 쉽고 스스로를 얽어매는 울무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달라질 수도 있는 미래,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있는 미래, 약해질 수도 있고 환경이 열악하여 뜻한 바대로 살 수 없을지도 모를 미래,

그 미래를 위해, 보다 유연한 고무줄 철학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저, "지금 나의 생각은 이렇다"고 말하자.

"적어도 지금 나의 생각은 그렇다"고...

지금, 그리고 내 생각은...

"모두가, 항상 그래야 한다"가 아니라,

"지금, 내 생각은 그렇다"고...

지식이 깊어지고, 견문이 넓어지고, 경험이 풍부해지고, 지혜가 쌓이면, 지금 나의 생각과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르니까...

지금의 나는 우물안에 있는 개구리인지도 모르니까...

서로의 지지와 격려, 자극과 도전을 통해, 끊임없이 배우고 생각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자주 만나지 못해도 서로의 존재를 의식하면서 스스로 그것을 자극삼아 도전받고 노력하는 여러분이 기특합니다.

고무줄 철학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여러분이 지식과 감정과 의지, 이렇게 조화로운 인격으로 성장해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오늘 아침, 재권의 글로 인하여 "따뜻한 가슴, 공감, 이해, understanding"에 대해 생각해보며 다시금 균형을 잡으려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 2차합숙팀-프리스트아일

이름 : 한덕연 (servant@welfare.or.kr) 날짜: 2001/10/23 10:41:16, 조회: 26

제목 : 인생은 누구나 세입자(賃入者)(傳賃)...

주인이 세입자의 방에 들어와서 이것저것 살펴본다는게 마음에 걸리는군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양해를 구하고 그런다면 모를까...

난 80년 겨울에 상경하여 결혼할 때까지 형님 집에서 내집처럼 살았습니다. 결혼해서 잠시 단칸방에 살았는데, 주인집과 참 사이좋게 재미있게 지냈어요. 딱 1년만에 둘째 아이를 낳아 책상위에서 키우다가 할 수 없이 지금의 두칸짜리 셋방으로 이사왔습니다. 이웃들과 헤어져 이사한다는 것이 마음은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93년 3월이었으니까 벌써 만 8년이 넘었군요.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세입자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답니다. 그러면서도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세입자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잠시 살다가 가는 집이니까요. 시49:11에 "저희의 속 생각에 그 집이 영영히 있고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리라 하여 그 田地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도다" 하지만 아무도 그 집에 영영히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나 나나 다 같이 잠시 머물다 가는 세입자와 같다고 생각했지요.

집을 자기 이름으로登記할찌라도 그 역시 잠시 살다 갈 사람일뿐이지요.

난 지금 사는 집을 내 집으로 여기고 삽니다. 집과 동네청소도 내가 하고 대문 세척과 페인트칠도 내돈으로 내가 하고... 사는 동안에는 내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인은 바뀌어 이사갔지만 난 그대로 거기 살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필요에 따라 적절한 곳으로 이사가겠지만...

그저 언제든지 떠나고 싶을 때 훌쩍 떠날 수 있도록 소유를 줄일 공리만 할 뿐, 집주인 눈치보는 일은 없습니다.

집주인도 나름이겠지만, 세입자도 나름입니다. 주인의식으로 일하는 종업원이 있듯이 주인처럼 사는 세입자도 있답니다.

경희야,

가진 것이 없고 욕심이 없으면, 집주인 욕하거나 참고 지낼 필요도 없단다. 가진 것이 없으니 언제든지 훌쩍 떠날 수 있고, 욕심이 없으니 아무데나 살 수 있어 집을 구하기도 쉽잖아. 네 뜻을 따라 떠나는 것이지 주인이 너를 쫓아내는게 아니야. 다 버리고 이사가거라.

2차합숙팀-프리스타일

이름: 한덕연 (servant@welfare.or.kr) 날짜: 2001/04/13 19:00:58, 조회: 27

[재권의 글을 읽고] 즐기고 느끼고 행복하기를...

사람이 해 아래 사는 동안 분복을 누리며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재권아,

뛰어난 과업수행능력을 어리숙한 웃음속에 감추거라.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그것은 바로 "네 자신이 행복해하는 모습" 일지도 모른다.

재권의 그 이성적인 판단력과 절제력, 목표와 원칙에 충실한 삶의 태도, 주어진 과업에 성실하게 임하는 자세, 그런 장점도 잘 살려 쓰되, 즐기고 기뻐하는 정서지향적 삶도 버리지 않았음 좋겠다.

자, 긴장을 풀고 실컷 웃어보렴. 그냥 바보처럼.

그냥 기쁘고 즐겁다고 해요. 사랑스럽다고 해요. 예쁘다고 해요.

기뻐하는 것은 행위이지 감정이 아니니까...

2차합숙팀-프리스트아일

이름: 한덕연 (servant@welfare.or.kr) 날짜: 2001/05/25 10:41:13, 조회: 25

가영이의 실습후기가 내게 들려 준 이야기들...

오늘 아침 가영이의 실습후기를 읽으면서 몇번이나 뜨거운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당신이 나의 이런 모습을 비웃을지라도, 때로는 어떤 이에게 마음을 동하는 동정, 그것으로 내 가슴 적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고등학교 때 선택한 것은,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사회복지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적 사회복지가 아니었습니다.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 소외된 사람, 외로운 사람, 마음 아파하는 사람을 위해 천사처럼 섬기고 싶어 사회복지를 선택했습니다.

그때 내가 꿈꾸었던 것은 상담이나 행정이나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정을 나누고 낮은데서 온 몸으로 섬기는 가장 현장적인 봉사자의 삶을 살고 싶어했습니다.

..... 고민, 갈등 .....

그런데, 지금 내가 걸치고 있는 사회복지라는 옷은, 어쩌면 내게 맞지 않은 억지 옷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필요하고 절박한 과제임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또 이 일에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 의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가슴은 끊임없이 다른 길로 이끌어갑니다. 사회사업을 선택했던 첫 사랑으로, 실천 현장에 뛰어 들던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정서적 충동때문에 괴로워하곤 했습니다. 사명감으로 불타는 머리와, 실천 현장에 파묻히고 싶어하는 가슴사이에서 번민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회복지의 내일을 위한 나의 십자가를 내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가영이의 실습후기를 읽을 때 감정이입을 경험하는 듯 하였습니다. 가영이의 말은 모두가 내게 하는 말 같았습니다.

.....

과제가 많아서 마룻바닥에서 안경을 쓴채로 졸은 날이 여러날이었고, 그래서 실습이 끝나 오늘은 안경도 벗고 볼도 끄고 따뜻한 이불위에서 자려 한다는 대목에서는 그 소회를 형언키 어려웠습니다.

그래, 가영아, 평안히 잘 자거라.

편식을 한다는 윤구의 집안 사정 이야기,

직장에서 늦게 오시는 엄마를 기다리며 왜 우리 엄마는 안오냐고 묻는 태웅이 이야기,

"선생님, 저도 뛰어놀고 싶은데..."

"선생님, 정리하는 것 저도 돕고 싶어요.."

"저도 계단을 올라갈 수 있어요. 누가 뒤에서 받쳐주면요.."

민호의 이야기...

하나님, 민호가 이 세상을 곳곳이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3차복지순례단-플래처

이름: 한덕연 (servant@welfare.or.kr) 날짜: 2001/11/25 14:39:32, 조회: 35

특별한 말로 잘 해주는 것도 좋고...

빵을 파는 분이 장애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달리 하지 않은 것도 좋을 것 같다.

하지만, 때로는 제영이처럼 특별한 말과 웃음으로써 그분을 행복하게 해드린다면 그 또한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일 것 같다.

동정한다고 나쁜 것도 아니고, 특별한 말로 특별하게 배려한다고 나쁜 것도 아니며 평범하게 보통으로 대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단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에는 너무도 많은 변수가 있기에...

좋고 덜 좋은 것을 분별하기에는 너무도 많은 정보가 필요하기에...

진실한 마음 곧 진심으로 행하면 방법이 그다지 중요한 변수가 아닐 때도 있지...

3차복지순례단-플래치

이름: 한덕연 (servant@welfare.or.kr) 날짜: 2001/11/20 23:36:46, 조회: 33

그렇게 보면 좌파지...

사회사업가는 생태체계론적 입장을 위주로 하는 중도파인데...

건물이나 장애인 어느 한쪽이 장애의 원인일 수는 없단다.

장애란, 체계와 체계간의 부적응적인 관계 혹은 상호작용이지.

그러니까 다리가 불편한 분과 편의시설이 안된 건물, 이렇게 두가지 체계간의 부적절한 관계 혹은 상호작용, 그것이 곧 장애라는거야.

만약 민경이나 수연이의 말처럼 몸이 불편한 것이 장애가 아니라 편의시설이 안된 건물이 장애의 원인이라고 보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는 건물을 바꾸는 것 밖에는 안되지....

그것을 사회사업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사회사업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지 ....

장애인에게도 개입하고 환경에도 개입하되, 궁극적으로는 양자간의 관계 혹은 상호작용이 적응적이고 기능적이고 조화롭고 적절한 것이 되도록 하는게 사회사업이라는거야.

전문가로서 사회사업에 대한 기초 개념...

그런 차원의 문제인데...

3차복지순례단-플래처

이름: 한덕연 (servant@welfare.or.kr) 날짜: 2001/10/23 11:44:04, 조회: 35

논리의 오류...

경숙아,

"장애인이 소수이고 대부분이 정상인데 다수를 비장애인이라고 칭하는 건 옳은 표현이 아니래요."

그런데, 위의 주장은 옳지 않다.

아닐 비(非)자를 붙이는 것은 그 뒤에 오는 말을 부정하는 것뿐이야.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가에 따라 붙이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전문가를 위주로 하여 여타의 사람을 비전문가라 하고,  
회원을 위주로 하여 여타의 사람을 비회원이라 하는거 알지?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하여 아닐 비(非)자를 붙이고 안 붙이는게 아니지.  
심지어는 주류와 비주류도 그래, 소수가 주류를 형성하는 경우도 많다. 나머지 다수가 침묵하거나 분열될 때 특히 그렇지. 수만 많지 주류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해.

그리고 장애인을 기준으로 하여 여타의 사람을 지칭할 때 정상인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 반대편에 있는 장애인은 비정상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기 때문이지.

장애인이니 비장애인이니 하는 명칭은 관점, 기준, 필요 등의 변수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므로 어디까지나 상대적일 뿐이지 절대적인 이름이 될 수 없다.

시각장애 관련 분야에서는 맹인 vs. 정안인으로 구분하고, 청각장애 관련 분야에서는  
농아인 vs. 건청인으로 구분하는데

요컨대 이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의 문제이지, 사람 수의 많고 적음만 가지고 결정할  
문제는 아니란다.

3차복지순례단-플래처

이름: 한덕연 (servant@welfare.or.kr) 날짜: 2001/10/23 11:28:57, 조회: 32

동정은 자연스럽고도 아름다운 감정...

“몇일전 장애우대학에서 수업을 듣고 나서 어떤 한 장애인분이 질문을 하셨어. 근데 말 한마디 한마디 내뱉는게 너무 힘이 드시는거야.. 나는 맘속에 동정이라는 감정이 자꾸 생겨서 얼굴도 제대로 못쳐다봤어.. 글구 다른 장애인들을 보면서도 안쓰러운 마음이 자꾸 생겨..”

진영아, 이런 마음을 비난하지 말아.

동정해야 할 때 동정하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성경에서도 유가와 불가에서도 인간의 마땅한 도리라고 가르치고 있어.

불쌍한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을 의식적으로 죄악 시하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러운 것이며 아직 장애인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할 따름이다.

비장애인 중에도 불쌍한 사람이 있고, 장애인 중에서도 잘 사는 사람이 있으며, 장애인 이든 비장애인이든 누구나 슬픈 일이나 힘들 때가 있는 것이다.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그가 힘겨워할 때 동정하고 도울 마음을 가져야지, 그 대상이 장애인이라 하여 애써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막아버린다면 이는 부정적 차별일 뿐이야.

난 장애인 친구들이 많지만, 장애를 의식해야 할 때 의식하고, 의식하지 않아도 될 때는 의식하지 않으며, 장애를 고려하여 차별해야 할 때는 차별하고, 그가 힘들어할 때 동정하고... 다만 필요에 따를 뿐이지만 거의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하지.

안타까워하며 동정해야 할 상황이 장애로 인한 것이든 장애와 상관없는 것이든 동정해야 할 일은 동정하는게 사람의 도리가 아닐까

아는 사람 중에 신체적으로 밥 떠먹는 것조차 힘겨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가 일반 환자라면 참 안됐구나 하며 동정하고, 장애인이라면 동정하지 말아야지 하고 냉정해지는게 옳은가?

인생사에 한두가지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은데 이 문제 또한 그런 것 같다.

단순히 장애인이라는 변수만 가지고 동정의 선악을 판단할 수는 없다. 불쌍히 여기는 것이 옳으나 그르냐는 다른 변수들로써 판단할 일이다.



3차복지순례단-플래처

이름: 한덕연 (servant@welfare.or.kr) 날짜: 2001/10/13 11:08:43, 조회: 22

Re: 토끼와 거북이

그래, 맞아

사회사업 가치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바로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한다는 문화인류학의 교훈이지.

따라서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도 어느 한편의 가치관으로써 선악을 가르려 해서 안 되는거지.

토끼의 장점을 말씀하시는 분도, 토끼가 거북이보다 낫다고 단정하는 것이 아닐거야. 기준이 필요한거지. 어떤 점에서는 토끼에게 배울 것이 있고, 어떤 기준에서는 거북이를 더 칭찬할만하다... 이렇게 말아야.

그러니까 토끼의 장점과 거북이의 단점을 강조하는 새로운 시각의 강의를 듣고 조심해야 할 것은, 기존의 전통적인 시각을 맹목적으로 비판해서는 안된다는거야...

즉,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에서 거북이의 성실성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교훈을 무조건 무시해서도 안되고, 그런 관점만 가진 사람을 비난하는 오만함도 경계해야 할거야.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되었을 때는 우선 겸손해야 돼

이런 경우에는 "다양한 관점, 균형있는 사고방식"을 견지하는게 중요해...

어쨌든 새로운 관점에서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재해석해볼 수 있게 되었으니 고마운 일이다.

수연아, 보고싶다.

3차복지순례단-플래처

이름: 한덕연 (servant@welfare.or.kr) 날짜: 2001/10/12 16:02:04, 조회: 32

넓은 의미의 사회사업 그리고 자원봉사...

"오늘 저는 빨리 달리기만 하다가는 아름다운 경치들을 놓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고 빨리 달리는 것보다 경치를 완상하며 천천히 가는 것이 좋다고 할 수는 없겠지요. 견문과 체험, 지식지도를 넓히기 위해 빠르게 달려온 지난 날을 가치절하하거나 후회할 필요는 없습니다.)

민경이의 어록을 한권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보원에 "누가 내 치즈를 훔겼을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롱과 유머로 신랄하게 패러디한 책 "치즈 내것 만들기"도 있습니다.

균형있는 사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행함에 있어, 아름다운 경치를 보는 것이 주된 목적일 때가 있습니다.

목적지에 빨리 가는 것이 초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빨리 가는 것과 아름다운 경치를 보는 것, 기준이 없이는 그 둘의 가치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취업은 코앞에 와있는데 공부가 부족한 사람은 빨리 달음질해야 할 것이요, 아직 여유가 있는 사람은 즐기기도 하고 고민해보기도 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해보기도 하고 체험해보기도 하면서 천천히 갈 것입니다.

사회행동과 봉사활동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두가지 모두를 다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겁니다. 그러므로 사회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소시민적으로 봉사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 선악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교수님 말씀처럼 제도화에 방해가 되거나 무의미한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서비스 없이 action에만 치중하는 것이 공허한 것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으로, 어떤 사람은 묵묵히 실천하는 것으로 자기 길을 가지만, 그 자체만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가지 변수들이 있기에...

오히려 선택의 문제이고, 연속선상의 비중의 문제이며, 부분적 역할론의 문제라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원봉사,

어쩌면 보통사람들의 보통의 방식으로 복지를 녹여내고자 한다면, 사회복지사들이 각자의 직업을 가지고 사회속으로 나가 활동하는 것과 일반 사람들의 자원봉사활동과 외견상 거의 같아 보일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이야기이지만, 결국 넓은 의미의 사회사업과 자원봉사는 그 경계가 허물어질터인데, 복지라는 것이 특별한 직업이 아니고, 덕망있는 사람/의식있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할 삶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

민경이가 참 대견하다는 생각이 든다.

난 학교 다닐 때, 민경이가 생각하는만큼의 백분의일도 해보지 못했던 것 같다. (신앙활동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면에서) 민경이가 책을 읽고 봉사하고 견학하고 사람을 만나고 고민하고 돌아다니는 것을 볼 때 나오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놀랍기만 하다. 10년 뒤에 민경이가 어떻게 성장해있을지 기대된다.

3차복지순례단-플래처

이름: 한덕연 (servant@welfare.or.kr) 날짜: 2001/10/08 09:20:01, 조회: 24

제목: 마음 아프지만..

동물원을 보면서도 민경이는 복지를 생각했구나.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에서 복지를 읽어내고 복지를 생각하고 복지를 꿈꾸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지인이란다.

그런 점에서 민경이는 무슨 일을 하든지, 설사 동물원 문지기가 된다고 해도, 민경이는 그것을 통해 복지를 할 사람인 것 같다.

마음 아픈 이야기이지만, 오늘도 내가 정신차리고 싸우려 하는 것 중 하나가 동물원이란다.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보살피고, 사람들에게 구경시켜 주고 먹을 것 던져주게 하는 동물원 같은 사회복지 시설 말이다.

나의 싸움은 벌써 시작되었지. 장기전이 되겠지만...